



가본 적 없는 길을 가는 이주민, 그들과 동행하는 선교

21세기 세계선교의 중요한 흐름은 ‘남반구 선교의 약진’, ‘현지인 선교 중심으로의 전환’, ‘다양한 선교의 수용’이라 할 수 있다. 또 21세기 한국선교가 직면한 중요한 도전은 ‘비서구 주도의 선교 수용’, ‘속지선교가 아닌 속인선교로의 전환’, ‘지역교회의 선교 참여’를 꼽을 수 있다. 그리고 이 6가지 이슈를 관통하는 한 가지 키워드가 있다. ‘디아스포라-이주민’이 그것이다. 유엔 국제이주기구(IOM)에 따르면 2020년 전 세계 이주민은 세계 인구의 3.6%에 해당하는 2억 8,100만 명이었고, 2050년에는 약 4억 50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디아스포라-이주민은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도 세계선교의 흐름을 바꾸는 원동력이자 한국선교의 도전과제를 풀어나가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올해 아시아복음연맹(AEA) 40주년을 맞아 지난 10월 17일부터 21일까지 인도네시아 센톨 SICC 및 해리스호텔에서 열린 ‘이머징 리더스 서밋’(ELS’23, Emerging Leaders Summit 2023)과 23일부터 27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열린 AEA 40주년 기념대회(ACML’40, Asian Church and Mission in a New Landscape)에서 AEA 선교위원회 위원장 문창선 목사는 AEA 6개 태스크 포스트 중 하나인 ‘새로운 환경에서의 선교’ 팀의 대표로서, 플래너리 시간과 태스크 포스트 워킹 세션 워크숍에서 디아스포라 선교 및 이주민 선교의 잠재력을 소개하고, 이를 극대화하기 위한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창선 목사는 “세계 인구의 3.6%, 소위 30명당 1명이 이주민인 시대에 8,700만 명의 이주민이 있는 유럽 대륙에 이어 아시아에는 두 번째로 많은 8,600만 명의 이주민이 발생한다”며 “디아스포라-이주민은 아시아 교회와 선교에 매우 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제적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도 아시아 대륙에서 그동안 디아스포라 선교, 이주민 선교가 주목받지 못한 이유에 대해 그는 “여러 아시아 국가에 존재하는 다양한 종교의 존재가 기독교인들에게 어려움을 끼치고 있고, 특히 많은 아시아 국가의 고

유문화가 이주민 선교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문 목사는 “이주민 선교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심도 있는 성경적 확인, 신학적 적용, 국제문화적인 학습을 통해 이주민 선교를 이해하고 시작해야 하지만, 그동안 기술, 법, 사회·경제적 통합의 관점이 더 중요시 돼 왔다”며 “증가하는 이주민들을 포용하면서 이 같은 통합을 이루려면 성경적, 신학적, 타문화적 수용과 이해가 가장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주민 시대를 맞아 이주민 선교는 가장 우선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선교 영역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 세계 디아스포라 및 이주민 선교의 기회가 증가하고 있지만 오직 소수의 선교 파송 기관과 지역 교회만이 효과적으로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그 이유 중 하나는 대부분 속지적 선교에 고착된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속인적 사고로의 전환을 요청했다. 특히 “이주에는 두 가지의 선교학적 요인이 발생한다. 곧 개방성과 접근성”이라며 “사람들이 움직일 때

정상적인 삶의 패턴이 무너지면서 종종 새로운 관계와 아이디어에 대한 열린 마음이 생긴다. 삶이 고단하고 두려울 때 절대자를 찾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개방성을 갖게 되며, 소위 복음의 접촉점을 갖고 쉽게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반대로 이주민들이 찾아온 나라의 지역 교회와 성도 입장에서선 먼 나라까지 않고 그들에게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이라며 “개방성과 접근성은 이주민 선교의 핵심적 특징”이라고 강조했다.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주하며 가본 적 없는 길로 향하는 디아스포라를 통하여 복음이 땅끝까지 퍼져나가길 소망하는 디아스포라신문은 ACML 및 ELS 대회에서 다뤄진 이주민 선교 논의와 최근 디아스포라 사역 소식을 모아 11월호에 담아보았다.

이주민선교훈련, 왜 주목해야 하나



▲ 문 목사가 워킹 세션에서 이주민 선교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올해 아시아복음연맹(AEA) 40주년을 맞아 지난 10월 말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이머징 리더스 서밋'(ELS)과 40주년 기념대회(ACML)에서 AEA 선교위원회 위원장 문창선 목사가 디아스포라 선교 및 이주민 선교의 잠재력을 소개하고, 이를 극대화하기 위한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주민선교훈련이 필요한 7가지 이유

문창선 목사는 아시아 지역 교회와 선교사들이 이주민선교훈련을 받아야 하는 7가지 이유에 대해 먼저 “한국은 MMTS(Migrant Mission Training School)와 같은 이주민선교훈련학교가 성공적으로 준비되어 진행되고 있지만, 대부분 아시아 국가는 그들의 강력한 문화와 종교 성향에 따른 제한성으로 인해 이주민선교훈련학교가 자체적으로 시작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특히 중동 지역처럼 복음의 대척점에 있는 나라들은 이주민이 많이 발생해도 상대적으로 지역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효과적으로 이들을 품는 일이 적어, 더더욱 이주민선교훈련이 요청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목사는 “두 번째는 이주민 교회에 참여하기 원하는 지도자나 성도들은 의지만 갖고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교리적, 선교적, 실천적, 영적 시각으로 무장되어야 이주민을 대상으로 선교할 수 있으며, 세 번째는 성도들도 주님의 대위임령을 이루기 위해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때 이주민선교훈련을 통해 우리 결

에 찾아온 이주민을 대상으로 효과적으로 선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주민선교훈련을 통해 이주민이 겪는 실제적인 삶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들의 삶의 애환을 수용하고 함께 느낄 수 있는 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다. 한마디로 통전적 선교를 위해서라도 이주민선교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많은 아시아 지역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이주민선교훈련의 필요성을 인지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문 목사가 한국과 필리핀, 카타르 등에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나는 이 분야 전문가이므로 훈련이 필요하지 않다’, ‘나는 이미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더는 필요하지 않다’, ‘내게 주어진 영적 은사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이런 훈련은 불필요하다’, ‘나는 너무 바빠서 이런 훈련을 받을 시간적 여력이 없다’는 등의 답변이 많이 나왔다.

디아스포라·이주민 선교의 실천적 선교 전략 ‘페이스 이론’

문 목사는 지난 30년간의 사역 경험과 이론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이주민 선교의 실천적 선교 전략으로 ‘FAITH(페이스) 이론’을 제시했다.

‘FAITH’는 1단계 ‘노방이든 지역 방문이든 접촉점을 가지고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모임을 갖는 단계(Friendship), 2단계 ‘대상자를 교회로 초대하며 예배, 교육, 친교의 단계’(Assembly), 3단계 ‘이주민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모임을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Independence), 4단계 ‘훈련, 선별된 이주민을 사역자로 파송의 단계’(Transmission), 5단계 ‘역파송된 이주민 선교사들과 현지 네트워크를 통해 사역하는 단계’(Hub)를 의미한다.

문 목사는 “기본적으로 이주민들과 좋은 유대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지속적으로 쏟아부어야 하고, 반드시 복음적인 제사가 그 이후에 뒤따라야 한다”며 “그리고 나서 교회의 정기 예배와 성경공부, 친교를 통해 교회 팀원들이 내가 초대한 이주민 친구를 함께 맞이하고 전략적으로 섬겨 주게 된다”고 말했다. 문 목사는 “또한 이주민들끼리 자신들의 모국어와 문화로 나누는 시간과 공간, 그들의 리더십을 제공하여 스스로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목사는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이 혼란스러워하는 것은 계시록 7장에서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의 사람들이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함께 모여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묻는다”라며 “그러나 저는 그것이 궁극적인 하늘나라의 목표이지만, 이에 도달하기 전에는 고국의 언어와 문화, 정서를 갖는 공간과 시간을 교회가 배려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고 여러 나라 사람이 모이게

하는 것은 자칫 그들이 아닌, 우리 자신을 만족케 하는 관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 목사는 이어 “이주민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열정과 의지, 좋은 프로그램과 전략보다는 이주민 그 자체”라며 “이주민들이 행복해야 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가 맞춰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민 선교에서도 재생산은 중요하다. 문 목사는 “도날드 맥가브란 교수는 선교는 항상 재생산이 일어나야 된다고 말했다. 이주민 선교도 그들 가운데서 리더가 나와야 한다”며 “이주민 리더들이 세워지도록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을 교육시켜 자신들이 떠나온 고향, 또는 자신들과 같은 동포들이 많은 지역이나 해외로 나아가 선교할 수 있도록 역파송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목사는 이어 “위디국제선교회는 32년째 이주민 선교를 하면서 150여 명의 이주민 근로자, 유학생을 역파송했는데, 이 중 3분의 1을 잃어버렸다. 이단 사이버에 실족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소명을 놓치기도 했다”며 “이주민 선교사들도 보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충분한 관리와 지속적인 교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허브와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디아스포라 선교의 7가지 실천단계

문창선 목사는 성도 개개인이 디아스포라·이주민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7가지 방법을 제안했다. 이주민 선교의 실천단계로는 ①이주민 선교의 참



여와 진행을 위하여 비전과 열정을 하나님께 기도 ②이주민을 위한 선교적 태도 개발(마인드+라이프 스타일) ③주변 영역에서 이주민 관련 지도 제작 ④이주민 가족을 위한 창의적이고 전체적인 접대 활동 설계 ⑤효과적인 이주민 사역을 위한 지속적인 훈련 ⑥이웃 이주민들과 진정한 관계 구축 ⑦이주민 선교 파트너십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이 있다.

이와 함께 지역 교회의 이주민 선교 참여 형태로는 ①이주민 모임이 지역 교회의 공간을 가능한 시간에 사용하는 모델 ②이주민 모임이 지역 교회의 부서, 또는 부분 사역으로 포함되는 모델 ③여러 이주민 모임이 같은 지역 교회 내에 포함되는 모델(2번의 복합 모델) ④지역 교회가 어느 지역에 목적형 이주민 교회를 설립하는 모델 ⑤서로 다른 지역 교회가 공동으로 이주민

교회를 설립(지원)하는 모델 ⑥지역 교회가 이주민 교회를 품으며, 상호협력과 교류 형태의 모델 ⑦이주민 성도들이 지역 교회에 참여하여 동화하는 모델 ⑧여러 이주민 교회들이 같은 건물을 사용하나 자치 형태의 모델 ⑨예배를 공유하기 위하여 여러 이주민들이 모이는 교회 모델 ⑩지역 교회가 여러 모델을 수용하여 복합적으로 적용하는 모델 등을 소개했다.

문창선 목사는 마지막으로 “우리는 먼저 세계선교를 보고, 선교적 행함은 지역에서부터 해야 한다(Think globally, act locally!)”며 “작은 것부터,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만나는 사람부터, 지금부터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From small one, From near one, From little one, From now on!)”고 강조했다.

이지희 기자 jsowuen@gmail.com

한국선교계, 비서구 선교 중심 운동으로 방향 전환 논의

한국선교 리더십과 목회자들이 한국선교의 바람직한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라운드 테이블’이 지난 10월 초 강원 강릉과 인천 송도에서 각각 진행됐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는 지난 6월 평창에서 열린 제8차 세계선교전략회의(NCOWE, 엔코위) 이후 한국교회 리더십과 선교계 내에서 한국선교의 방향에 관한 논의를 확산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까지 총 11차례 라운드 테이블 모임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10월 2일부터 4일까지 강릉 스카이베이 호텔에서는 ‘NCOWE 이후 서울로잔대회를 앞둔 한국선교의 방향 설정을 위한 제1차 라운드 테이블’이 진행됐다.

1차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이규현 목사(수영로교회)가 개회 예배 설교와 모두발언을 한 후 강대홍 목사(KWMA 사무총장)가 ‘선교인 세우기와 비서구 교회와 같이 가는 한국선교’, 한철호 선교사(미션파트너스 상임대표)가 ‘세계 기독교 시대의 한국 선교 패러다임 전환’, 이준성 목사(COMIBAM)가 ‘코미밤의 선교 운동 발전과정과 현재 상황’, 문대원 목사(대구동신교회)가 ‘로잔운동과 로잔 이후의 비서구권 중심

선교 예상’, 박경남 선교사(WEC 국제총재)가 ‘세계 선교의 변화 속에 한국 교회의 역할’, 권성찬 선교사(GMF 대표)가 ‘본질을 향한 성찰(타자를 통해 타자를 넘어 본질을 성찰함)’, 전철영 목사(GMS 사무총장)가 ‘건강한 선교와 책무’, 최남수 목사(광명교회)가 ‘비서구 중심 선교의 모델(기도운동)’, 문창선 목사(위대국제선교회 대표)가 ‘국내 250만 이주민 선교 매뉴얼’에 대해 각각 발제했다. 논찬은 허요환 목사(안산제일교회),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 김찬곤 목사(안양석수교회), 주승중 목사(주안장로교회), 윤학희 목사(천안성결교회), 홍경환 목사(PCK 총무)가 맡았다. 마지막 전체토의에서는 한국교회가 비서구 선교 중심 운동으로 나아가기 위한 1차 라운드 테이블의 결론을 냈다.

곧이어 10월 5일부터 6일까지는 송도 웨라톤 그랜드 인천 호텔에서 ‘한국선교 방향전환을 위한 2차 라운드 테이블’이 열렸다. 이번에는 KWMA 운영이사 여주봉 목사(포도나무교회)가 모두발언을 한 후 강대홍 목사가 ‘선교인 세우기와 비서구 교회와 같이 가는 한국선교’, 이준성 목사가 ‘코미밤(남미) 선교운동 보고’, 강대홍 목사



가 ‘KWMA/KWMC/KWMF의 현장 중심 선교 MOU 설명’, 김충환 목사(HIS)가 ‘9개 교단 선교회 부동산관련 정책 결의 설명’, 한철호 선교사가 ‘세계 기독교 시대의 한국 선교 패러다임 전환’, 박경남 선교사가 ‘세계선교의 변화 속에 한국교회의 역할’, 황덕영 목사(새중앙교회)가 ‘비전 선교사(선교인) 운동 소개’, 권성찬 선교사가 ‘본질을 향한 성찰(타자를 통해 타자를 넘어 본질을 성찰함)’, 문창선 목사가 ‘국내 250만 이주민 선교 매뉴얼’, 노성천 목사(KWMA 협동총무)가 ‘세계 기독교 시대의 한국 선교사: 현지교회 중심의 동반자’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논찬은 조은태 선교사(한국OM 대표), 고성준 선교사(수원하나교회), 조샘 선교사(인터서브코리아 대표), 태동화 선교사(KMC)가 맡았다.

테이블별 토의와 발표 후에는 강대홍 사무총장이 한국교회가 비서구 선교 중심 운동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에 대해 나누고 제2차 라운드 테이블을 결론지었다. 이번 모임에서 강 사무총장은 제8차 NCOWE에서 제안된 핵심 이슈들을 소개한 후 “한국교회 안에 ‘평신도 선교인 세우기’를 통하여 현재의 선교적인 어려움들을 극복하자”며 한국교회의 동참을 호소했다.

KWMA는 “두 차례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 지난 NCOWE 대회의 논의가 더욱 심화되었고, 한국교회 안에 현시대 한국선교의 방향이 무엇이며, 한국교회가 비서구 선교를 섬기기 위해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하는지 통찰을 주었다”고 의의를 전했다.

이지희 기자 jsowuen@gmail.com



www.globaluniversity.kr

글로벌대학교

Global University

미국연방정부 BA학사학위(신학과, 기독교교육과)
 대졸, 신학졸, 전문대졸 편입가능
 한글, 영문 택일 / 혼용
02-3662-1004

김해에 온 이주민들을 섬기는 주님의 손과 발, 조이센터

IM국제선교회 소속
조이센터장



이동규 선교사

글

조이센터는 2020년 3월 초에 김해에서 시작된 이주민선교센터입니다. 수영로교회 선교사 세 가정이 영남권에서 이주민이 가장 많은 지역인 김해로 파송되면서 시작되었고, 지금은 선교사 두 가정이 조이센터를 담당하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이센터가 지금까지 걸어온 과정을 간략히 정리한 것으로, 이주민선교를 시작하는 과정으로써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조이센터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 2019년: 김해 이주민선교를 위한 저력 기도회

- 2020년:

- 1) 조이센터 시작: 3가정 6명의 선교사 (모두 해외선교사에서 전환)
- 2) 코로나19 발생 이후 비대면 사역과 생필품·마스크 나눔 등의 공활 사역을 중심으로 전개
- 3) 이주민선교에 대한 이해와 연구를 위해 안산의 이주민센터 탐방, 김해지역과 여타 지역교회의 사역자 방문
- 4) 이주배경 학생 수가 많은 초등학교의 다문화담당교사·교장선생님을 방문, 이주민 맞벌이부부의 자녀가 집에 혼자 있는 경우가 많아 초등 저학년 아이들을 맡아줄 기관을 찾고 있음을 듣고 이주민 차세대 선교를 시작하기로 결정

- 2021년:

- 1) 방과후돌봄학교 시작: 센터 주변 학교 중 이주배경 아이들을 위한 '한국어교실'이 있는 학교 두 곳에서 돌봄이 필요한 초등 12학년 아이들을 소개받음
- 2) 김해조이투어: 김해가 3만 명 이상의 이주민이 살고 있는 선교지임을 알리고, 중보기도 및 동역자를 일으키기 위한 사역
- 3) 희년의료공제회 지부 역할 시작: 서울에 본부가 있는 NGO 의료선교단체 사역으로, 미등록이주민을 선교하기 위해 회원제로 운영하는 개인의료보험 사역

- 2022년:

- 1) 돌봄학교 프로그램의 다양화: 김해가족센터의 지원을 받아 수업 진행
- 2) 글로벌 주일학교 시작: 돌봄학교에 참여하는 아이들을 중심으로 부모의 허락을 받아 2명 출석에서 시작함
- 3) 희년의료공제회 경남지부가 되기 위한 노력
- 4) 한국어교실: 이주여성 및 이주배경 청소년을 위한 한국어교실 진행
- 5) 여름방학 중 김해임팩트 이주민선교 사역: 단기선교 팀 방문, 공연 사역 등

- 2023년:

- 1) 방과후돌봄학교: 김해시 공공기관의 지원 확대(김해시청·김해가족센터의 수업 지원과 김해청소년상담센터의 상담 지원)
- 2) 글로벌 주일학교: 돌봄학교 15명 중 12~13명의 아동이 출석, 유치부에서 중등부에 이르는 아이들까지 함께 주일예배를 드리고 있음
- 3) 희년의료공제회: 사역이 점점 알려지면서 회원이 늘어나고 있으나 아직 지부로서 자리매김하지 못함
- 4) 이주민 가정 선교를 위한 사역: 부모님 초청 바자회, 매월 첫째 주일 의

료사역, 가족캠프(1박2일), 제자훈련 후 고국 방문(매년 센터 소속 아이들의 고국 1곳), 전문기업의 후원으로 이주민 가정 무료 정리수납 등

5) 김해 이주민선교 사역자 정기모임 시작: 매월 1회 각 센터를 돌아가면서

♣ 조이센터의 주 사역 소개

1) 방과후돌봄학교

2021년 3월 2일에 설립된 돌봄학교는 8명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6개국 15명의 이주민 아이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돌봄학교에 다니며 학교와 가정에서의 생활이 개선되자 돌봄학교에 오고 싶어 하는 학생 수도 늘어났습니다. 현재 공간의 한계로 15명의 아동만 돌보고 있는데, 센터에 오고 싶어 하는 이주 아동들을 더 수용할 수 있도록 넓은 장소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돌봄학교를 통해 얻게 된 효과는 지역사회와 이주민 가정의 신뢰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는 선교적 열매로 이어졌고, 센터 아이들 중 80% 이상이 주일학교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중앙아시아와 방글라데시 등의 이슬람국가 가정의 자녀들도 주일학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김해시

의 공공기관에 알려지면서 돌봄학교에 필요한 수업 지원도 받게 되었습니다. 작년 가을부터는 김해가족센터에서 학기마다 2~3개 과목 수업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상담이 필요한 2명의 아이가 상담 지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김해청소년상담센터를 통해 2명의 아동이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김해시의 이주민지원팀이 진행하는 이주민지원사업 중 '외국인주민 자녀 진로탐방교육'이라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주배경청소년 중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들도 많아지고 있기에, 이들의 진로를 위한 사역에 관해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업을 포기한 청소년이나 학교생활에 적응이 어려운 청소년들이 기술 관련 자격증을 취득해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 과정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주민 가정 중에서 깨어진 가정의 자녀들이 돌봄을 받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주민 자녀 대상의 '초등학생 대안학교'에





하나님의 기쁨과 자람이 되는 교회

고현교회

대한 예수교 장로회

경남 거제시 계룡로 11길 17-7(고현동)
전화 : 055-635-5511, 팩스: 055-637-5513
www.gohyun.org

담임목사 / 박정곤

- 부목사 / 변건식 최윤갑 조생준 강성관 방영진 김준웅 서 훈 최기천 김승운 문향기 강민환
- 기관목사 / 김성운 김옥천
- 장로 / 심종화 정해춘 강현성 유진옥 이상호 박달수 원용삼 옥영섭 천경을 신득수 이창진 정달전
- 협동장로 / 임낙연 윤정명 무임장로 / 김진옥 김성현 원로장로 / 옥기철 옥금석
- 은퇴장로 / 김운탁 박광운 옥치안 이흥일 강영식
- 강도사 / 하진호 전도사 / 안복희 강영애 사역자 / 천영숙 오정미

2021년 고현교회 선교사 현황

- 파송선교사 21가정 : 김경용, 윤보석, 황정대, 박진옥, 박변화, 고덕현, 윤상혁, 김 후, 김숙자, 조영태, 이철신, 김현철, 손상호, 윤 옥, 이진호, 김광선, 이임호, 김상민, 조운태, 박양재, 정보애
- 협력 후원선교사 213가정 25쌍을 협력 후원 현지인 사역자 31가정 협력 후원 선교단체 34기관



관하여 기대를 품게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같이 기숙하면서 삶을 나누고 삶 속에서 신앙교육을 병행한다면, 제자화의 시간을 통해 아이들이 주님을 닮아가고 각 나라와 열방을 위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2) 글로벌주일학교

방과후돌봄학교를 시작한 지 1년 후, 이주배경 아이들만 모여서 드리는 글로벌주일학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돌봄학교를 통해 아이들의 부모님과 신뢰를 형성하였지만, 이들을 예배의 장소로 오게 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첫 예배 때 2명의 아이가 출석하였고, 시간이 흐르며 조금씩 더 많은 아이들이 찾아와 지금은 매주 9개국 15~20명의 아이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또한 어버이날 행사와 바자회를 기획하고 아이들의 부모님을 초청하여 함께 예배드리기도 했습니다. 올해 3월에는 경주에서 1박2일 가족캠프를 가졌고, 12명의 이주민 부모님과 22명의 아이들이 참여했습니다. 가족캠프의 반응이 좋아 올해 11월에도 1박2일 또 다녀올 계획입니다.

교회를 다닌 경험이 있는 아이들이 거의 없어 작년 한 해는 성경 이야기와 기본적인 기독교 교리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자훈련을 하기에는 시기상조였고, 따라서 부모님이 허락하는 10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제

주도로 비전트립을 다녀왔습니다. 올해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고 자원하는 6개국 10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제자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CIP(기도하는 아이들) 훈련에 참여하고, 오후에는 김해로 돌아와 2시간가량 제자훈련 시간을 가집니다.

11월에는 특별히 몽골로 4박5일 비전트립을 가려고 준비 중입니다. 비전트립 대상국은 센터에 다니는 아이들의 고국부터 방문하기로 하였고, 그중에서도 센터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센터의 사역자들과 깊은 관계가 형성된 이주민들의 나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비전트립으로 간 나라에서 아이의 가족과 친인척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인데,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만 고국의 가족들과 긍정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전트립을 가게 되면, 이주민 가족들과의 만남의 자리에서 현지 선교사님들을 동원하여 선교의 연결고리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김해에서 이주민선교를 시작한 지 이제 4년이 되어갑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사역의 길을 되돌아보면, 연약한 기도에도 완전한 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사역의 현장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기적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 2023년 김해 공연사역



▲ 2023년 가족캠프



▲ 2023년 가족캠프



Jewish Voice Ministries International, Korea

우리는 예수의 구세주이심을 선포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16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세계 여러나라에 흩어져 있지만, JvMI Korea는 특히 에티오피아와 짐바브웨를 주목합니다. 복음을 담아 구제하며 기동성이 빠른 이동클리닉을 통해 치과, 안과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육체적 필요를 지원하며 예수의 사랑과 소망을 나눕니다!

여러분도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www.jvmikorea.org

더 문화 속으로, 우리, 다 문화 속으로!



지난 10월 14일 문화의 도시 홍대에 서 '더 문화 속으로, 우리, 다 문화 속으로'라는 주제로 다문화페스티벌이 개최되었습니다. 홍대 기독교문화단체 '수상한 거리'가 주최한 본 행사는 홍익문화공원에서 열려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공연과 부스로 채워졌습니다. 이러한 축제를 기획한 이유는 서로의 다양성과 다양한 문화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장을 열고, 우리 안에 서로를 품어줄 수 있는 여유가 있는지 되돌아보기 위함입니다.

2021년 기준 대한민국 내 다문화 가구원은 111만 9천여 명으로 전체 가구원의 2.2%를 차지하고, 다문화가정의 출생아 수는 1만 4천여 명으로 국내 전체 출생아의 5.5%에 달합니다. 통계청의 인구전망에 따르면 2040년 한국 전체 인구 가운데 다문화 인구는 6%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또한 내국인은 계속 줄어드는 반면, 이주배경 인구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한국사회 내 다문화가정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결

과에 따르면 성인들의 다문화수용성은 이전에 비해 하락하였습니다. 특히 성인의 경우 '이주민과 친교관계를 맺고자 하는 의지'를 의미하는 '교류행동의지'가 가장 낮게 측정되었습니다. 이는 이주민에 대한 거부감과 고정관념·차별을 갖지 않는 측면에서는 다문화수용성이 높을 수 있으나, 적극적으로 관계를 형성하려는 의지 자체가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상에서 이주민을 자주 볼수록 다문화수용성이 높아지는 경향성이 있음을 고려할 때, 이주민을 만나는 빈도가 줄어들수록 다문화를 포용하고 다문화인들과 소통하려는 의지 또한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은 정치, 경제, 사회, 국제관계 등 모든 활동 영역에서 타 집단에 대한 배제의 논리가 강화되는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삶에 대한 만족도가 평균 이하이며 사회적 지지감은 최하위권 수준에 머무릅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들 역시 한국 생활의 어려움을 얘기할 때 세 번째로 높은 비율의 응답이 '외로움'이며, 이는 자살률 증가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홍대를 기반으로 문화사역을 하고 있는 '수상한 거리'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홍대를 찾아오는 외국인들을 보며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이에 '다문화'라는 단어가 아직 한국에서는 다소 무겁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사람들이 다문화를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무엇보다 '다문화' 하면 국가 대 국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에, 모두가 '사람 대 사람'으로서 동일하게 소통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전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싶었습니다. 행사에 모인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며 이주민이 타지에서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다른 문화에서 온 이들을 포용하고 환대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에 동참한 여러 기독교 및 일반 아티스트가 페스티벌에 힘을 더해주었습니다. 요즘 소셜미디어에서 인기를 끄는 '조주봉(홍박사)'이 스페셜 MC로 참여했고, 비보이 크루 '히츠'를 비롯하여 다문화 청소년 댄스팀

'Light Seer', 싱어송라이터 'KOUL', 퓨전 국악밴드 '경지', 래퍼 '조이팩트' 그리고 '차이스타'와 'SB Boyz'가 공연을 통해 축제에 활기를 더해 주었습니다. 마지막 무대인 '빅콰이어'의 공연 때는 모든 참가자들이 손에 손을 잡고 즐겁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또한 '평화를 그리다'라는 주제로 아프가니스탄 출신의 화가 David Hanif 씨의 그림 전시가 열렸고, 가나·모로코·베트남·중국·카메룬·한국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각종 부스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지향드림' 캘리그래피, 전통 옷 체험, 페이스페인팅 부스가 시민들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부스 운영에 참여한 가나 국적의 한 참가자는 "제가 속한 다문화 커뮤니티의 사람들도 울타리 안에만 있으려 하는데, 이번 축제를 통해 이들이 밖으로 나올 수 있어 행복합니다"라며 소감을 전해 주었습니다. 수상한거리는 앞으로도 문화사역을 통해 다양한 문화를 환대하기 위한 포용의 장, 소통의 장을 열어갈 것입니다.

글 제공 수상한거리



To-Plate

천혜지역 호주의 먹거리는 우리의 건강을 지원하며, 식탁을 풍성하게 합니다.
전 세계 가족들을 더욱 행복하게 하는 To-Plate는 한국에서도 직접 구매가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국문의 010-6342-0691



At To-Plate, you will learn unique stories of passionate Australian producers and be able to buy their artisan food & beverage products via our online grocery store. The best part? We'll deliver the treats to your door.

한국에서 네팔 이주민 선교를 하기까지



이삭 파쿠렐 목사

Rev. Issac Pyakurel

저는 히말라야 기슭의 작은 나라 네팔에서 온 이삭 파쿠렐입니다. 현재 한국 평택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2021년 11월에 설립된 디아스포라네팔교회의 사역자로 있습니다. 저와 우리 가족이 어떻게 주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게 되었는지 여러분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카스트 제도의 최상위 계급인 브라만 가문 출신으로서 힌두교 사제로 일하셨고, 산스크리트어로 쓰인 힌두경전 연구와 암송에 깊이 몰두하시곤 했습니다. 그러다 어머니의 지병으로 인해 우리 가족은 극심한 고난을 겪었고, 그간 아버지가 일하시며 축적한 땅 일부와 재산을 잃게 되었습니다. 혹독한 삶의 무게에 아버지는 결국 알코올중독의 길로 접어들고 말았습니다. 술이 아버지의 존재를 지배했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워지자, 누나는 인도에 있는 기독교 보육원과 소녀들을 위한 미션스쿨로 보내졌습니다. 그곳에서 누나는 8살 때 처음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였습니다. 9살 때 방학을 맞아 집으로 돌아온 누나는 우상숭배의 허무함을 강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아버지께 용기 있게 복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곤 신약성경을 선물하여 읽어보라고 권하였는데, 놀랍게도 그 이후로 아버지의 내면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알코올중독자였던 아버지가 술을 끊자 주변에서도 놀라워했습니다.

네팔 정부의 기독교 박해가 워낙 심하였기에, 아버지는 1992년 인도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에 개종 사실을 가족들에게 숨기셨는데, 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게 되자 가족 안에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몇 년간 혼란을 겪으시던 어머니도 마침내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다. 당시 의사들은 어머니가 얼마 못 살 거라고 했지만, 어머니는 기적적으로 건강이 호전되었고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족 안의 투쟁과 변화를 목격하면서, 우리 가족을 파멸에서 건져주신 예수님께 제 삶을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후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부단히 일하셨고, 신학을 공부하여 복음주의 아라드하나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남아프리카에서 온 선교사 한 분이 저의 고등교육을 지원해주셨습니다. 그 후 저는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 침례교 신학교에서 공부할 기회를 얻었고, 2009년에 신학사(B.Th.) 학위를 받았습니다. 네팔로 돌아오고 나서는 아버지가 20년 넘게 사역자로 재직하고 계시는 교회에서 아버지를 보좌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2013년에 한국에서 장학금을 받으며 목회학석사(M.Div.) 과정을 시작하여 2016년에 수료하였고, 2017년부터는 박사 과정을 밟으며 학업을 이어갔습니다. M.Div.를 수료한 후에는



▲ 디아스포라네팔교회 예배 풍경

2년간 하이웃이주민센터에서 코디네이터로 활동하며 영어예배를 개설했습니다. 활동하면서 '네팔인이 주도하는, 네팔인을 위한 사역'의 필요성을 인식하였고, 한국 국적을 취득한 다른 네팔인 목사와 공동으로 교회를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네팔인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인 지하철역 근처에 작은 주택을 빌려 교회로 개조했습니다. 또한 구직자들을 위한 쉼터를 따로 마련하여 임시 거처를 제공했습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이주민 개개인이 교회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 네팔에서 기독교와 거리를 두었던 사람도 한국에서 체류하며 변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약 4만 명 이상의 네팔인들이 한국으로 이주하여 살고 있는데, 그중 6천여 명이 평택과 그 인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의 사역은 노동자를 중심으로 하여 다양한 직군의 사람들과 유학생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일에는 자립선교사로서 일하고, 주말에는 전도를 나가거나 주일 네팔 예배를 이끄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말에 교회에 찾아온 분들과 교류하며 그분들의 이야기와 요

구에 귀 기울이고, 지역교회와 관련 사역자들에게 이들을 연결해 주고, 또는 일터를 연결해 주는 식으로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와의 관계도 언제나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역에는 아내 마니타 파쿠렐과 아들 엘손 파쿠렐(6살)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어려움이 따르기도 하지만,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언제나 다스리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기도제목

1. 디아스포라네팔교회가 2021년 소수에서 출발해 지금은 매주 15명 정도 출석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교회가 성장해 나가도록.
2. 교회 쉼터에 머무는 사람들을 섬길 때 그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3. 자립선교를 하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이 열리도록.
4. 올해부터 시작한 건축 프로젝트가 잘 진행되도록.
5. 도움이 필요한 네팔 교회에 사람들을 연결해 주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원 사역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산소망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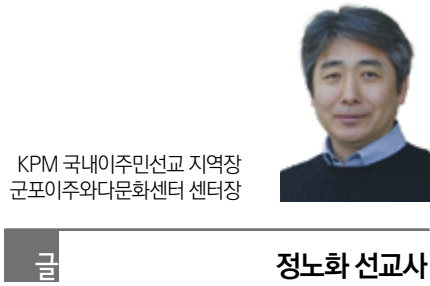
이주민선교

온가족예배

유관기관 위디국제선교회, (사)피드더칠드런 한국위원회
명학마을 작은도시관, 보아스의밭

산소망교회 안양시 만안구 명학로 66-16
www.sansomang.org
031-468-9191

이주민선교 역사와 한국교회의 나아갈 방향 (2)



정노화 선교사

한국교회의 나아갈 방향

1) 다문화사회로 이행하는 한국 사회와 병행하는 선교

영국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서 세계는 이제 대(大)이민 시대에 들어섰다고 밝힌 바와 같이, 선진국 내 외국 출생자 인구 증가율(전년 대비)은 지난해 약 4%를 기록했다. 영국은 이민자 유입이 약 120만 명으로 사상 최대였으며, 스페인 역시 이민자 사상 최대 유입을 기록했다. 호주의 50여만 명 인구증가 중 약 40만 명이 해외유입이었고, 올해 미국 이민자는 벌써 140만 명이다. 캐나다 역시 2023~2025년에 150만 명의 이민자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독일·프랑스 등은 글로벌 인재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다.

우리의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 역시 우수한 인재와 인력부족을 채우기 위한 이민자 유치 경쟁에 나섰다. 한국·일본·중국의 동북아시아 3국과 그 외에 대만·싱가포르·홍콩 등 대부분의 국가가 활발한 이민정책을 펼치며 우수인재의 유치와 노동력 확보에 국가의 사활을 걸고 있어 지금부터 30년은 아시아에서도 인력 쟁탈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도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이며, 이주민선교 역시 정부정책과 사회의 변화에 민감하게 발맞추어 나가면서 선교의 전

대상	제도	주요내용	이주민선교 연결점
모든 이주민	사회통합 프로그램	국적·영주자격 등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의 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정보 제공·상담 등의 사회통합 프로그램 시행	전국 300여 개의 운영기관을 통하여 이미 많은 선교단체교회가 참여. 한국어 및 한국사회이해 교육 제공 (한국어교원2급, 다문화사회전문가 자격 필요)
	조기적응 프로그램	최초 입국하는 외국인이 우리 사회에 빨리 적응하는 데 필요한 생활정보·기초법 습득 기회 제공	동포·결혼이민자·유학생·중도입국자녀 등을 입국 3개월 이내에 접촉할 수 있는 기회 (강사자격 필요)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2004년부터 실시. MOU 16개국으로부터 연간 쿼터제에 따라 5만 명 내외 도입	국가별 외국인근로자를 파악하고 노동·의료·한국어교육 등 필요를 따라 연결
	재입국특례제도	2012년 시행. 성실근로자제도에서 명칭변경. 업체 변경 없이 성실히 근무하면 귀국 후 1개월 뒤 재입국 가능	재입국 상담과 관리를 통하여 장기적 훈련과 본국 연결 등 성도의 신앙관리
	특별한국어제도	2011년 시행. 고용허가제로 입국하여 3년 이상 근무한 자가 출국 후, 특별한국어시험에 합격하면 6개월 이내에 재입국하여 근무	한국어 교육을 통한 동기부여와 장기적 접촉점 마련
	재직자 직업능력개발 훈련	고용허가제로 국내에 취업한 외국인근로자(E-9)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지원하여 직무능력 및 사업장 적응력 제고	직업학교 등과 연계하여 모집과 훈련 등에 참여
	계절근로자 (C-4, E-8)	농·어·번기의 고질적 일손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	지자체 간의 MOU를 통하여 선발하기에 지자체와 연결하여 도입과 관리 등에 협력
	점수제 숙련인력제도 (E-7-4)	2017년 8월부터 단순기능인력의 점수제에 따른 숙련인력 전환. 연 1천 명 선발. 2023년 연 5천 명→3만 명	점수 획득의 접촉점. 특히 한국어교육 비자전환 후 가족 초청
	우수인재점수제 (F-2-7)	2020년부터 D5-9, E1-7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합법체류자 중 소득·나이·학력 등의 기준으로 우수인재 비자 부여	우수인재로서 향후 이주민선교와 교회에 영향력 있는 장기 성도 양성 가능

〈표. 정부의 이민정책과 선교로의 연결점〉(옆면에 이어짐)

락을 개발하고 개척해 가야 할 것이다. 여기에 정부는 이민청의 설립을 기정사실화하였고, 이를 위한 준비위원회까지 구성할 만큼 정부는 적극적으로 이민을 받아들이고 다문화사회로 이행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 이미 한해 1만 명~1만 5천 명의 외국인이 한국인으로 귀화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필자가 선교학

회에 기고한 글에서 현재 정부의 이민 정책과 선교로의 연결점을 정리한 표를 살펴보면 상기와 같다.

2) 이주민 성도와 한국 성도

이주민들은 국가의 발전과 변화에 따라 이미 장기화 및 정주화의 단계로 들어선 상태이므로 이주 현상을 논할 때 단기 순환에만 집중하는 오류를 범

해서는 안 된다. 이주민은 가족 단위의 이민·장기체류·귀화 등을 거쳐 우리나라 인구감소 문제의 대안이 되었으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다문화사회로 이행하고 있다. 따라서 역파송의 전략도 중요한 한편, 우선적으로는 이주민을 이미 이곳에 정착하여 우리 교회 내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성도로 받아들이 준비가 필요하다.



DIASPORAnewspaper

디아스포라신문

이주민선교 정보를 공유하고 소식을 전하는 디아스포라신문의 문서선교에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구독신청: 010-7418-0191 ※ 후원계좌: 국민은행 264401-04-34307

대상	제도	주요내용	이주민선교 연결점
다문화 가정	다문화 이해교육 강사 제도	한국사회의 다문화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다문화 이해교육 강사 양성	학교·군·공무원교사 등 다양한 한국인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 교육 강의 (강사 양성과정 이수와 활동 필요)
	다문화 방문교육지도사	교육장소에 나오기 어려운 다문화가정을 방문해 한국어교육·부모교육·자녀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사업	한국어교육지도사 및 가족생활지도사로 다문화가정을 방문하여 선교 가능
동포	방문취업제 (H-2)	중국과 러시아 및 구소련지역에 거주하는 만 25세 이상 재외동포 중 일정 요건을 갖춘 동포에게 5년간 유효하며 1회 최장 3년을 체류할 수 있는 복수 사증을 발급	동포 관련한 취업 제도를 이해하고 지원함으로 연결
유학생	시간제 취업제	외국인유학생 체류자격 외 활동으로 어학 과정·학부생은 주 20시간, 대학원은 주 30시간 시간제 취업 가능	지방 대학의 유학생들은 일·학습 병행의 욕구가 특히 강함. 이를 지원해 주며 접촉점 형성
	구직활동 (D-10)	졸업 후 한국 내 취업을 원하는 대학 졸업자에게 1년, 대학원 졸업자에게 2년의 구직활동 기간 부여	한국 내 취업의 선호도가 높지만 어려움이 많기에 이 기간에 구직과 아울러 국내 정착 지원
	지역특화비자 (F-2-R)	시범 시행 중. 지방소멸지역 89곳을 대상으로 유학생·동포·외국인근로자 트랙 정착비자. 5년 후 영주권	지역의 주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가족 단위이기에 지역교회가 안아야 함
난민	재정착난민 제도	일본에 이어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재정착난민제도'를 시행. 2015년부터 1, 2차 시범사업을 통해 2019년까지 매년 30명 내외의 재정착난민을 수용 및 보호	주로 미얀마 난민을 난민캠프에서 선발. 부평지역 집중 거주. 미얀마 사역을 위한 접촉점
	인도적 체류허가	난민 인정자 외에 귀환조치의 어려움 등으로 체류허가 부여. G-1 비자로 6개월~1년 단위 연장 신청. 취업은 허용되나 임시적인 체류 지위로 인해 불안정한 고용상태	예멘·시리아 등 무슬림 사역 접촉점이 많음. 의료·보육·교육·생계지원·여성사역 등의 접촉점 형성

그러나 여기에 하나의 큰 걸림돌이 있는데, 바로 한국 성도들의 준비라 할 수 있다. 정부는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오래전부터 ‘다문화 이해 교육’을 실시해 왔다. 학교·군대·다양한 일터 등에서 이러한 교육을 진행해 왔는데, 여기에 가장 보수적이고 늦은 곳이 교회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회 내의 타문화 수용 능력은 얼마나 될까? 과연 이주민들이 교회에 들어와 잘 정착할 수 있을까? 이러한 논의는 신학에서부터 다루어져야 하고, 목회자들의 설교와 교회 교육 등에서 다양하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또한, 청년들이 우선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제는 대학 내에서 만나는 유학생들 간

의 결혼도 자연스러워진 만큼, 이들이 교회 안에서도 자연스럽게 수용될 수 있는 신앙공동체로 변화되어야 한다.

3) 이주민교회와 한국교회

선(先)이민국가의 모델처럼, 우리는 이주민교회가 자립(自立)하고 자전(自傳)하는 지속가능한 교회로 자리 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이렇게 세워져 가는 이주민교회가 한국교회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어떻게 동반 성장해야 하는지를 하루속히 정립해야 한다. 필자가 속한 고신 교단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총회헌법의 개정과 더불어 노회에서 이주민교회와 사역자를 소속시키고 정회원으로 받아들이는

단계를 논의 중에 있다. 이미 몇몇 교단도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책임 있는 사역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는 단계이다. 이주민교회를 한국교회와 동등한 위치로, 그리고 공교회(Catholic Church, Invisible Church)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갈 지체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한국교회의 미래가 있을 것이다.

4) 이주민 파송 선교와 한국 선교

선교전략 개발과 연대의 중요성 등은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미국 교회가 이미 오래전부터 작성해 활용하고 있는 이주민교회 설립 매뉴얼도 한국의 토양에서 새롭게 해석하는 노

력이 필요하다. 이주민선교는 한 국가 내에서만 구동되는 전략이 아니다. 보내는 국가(From)와 받아들이는 국가(Through)를 거쳐 세계로 파송하여 전하는(Beyond) 선교이다. 미국은 이미 유학생 선교를 위해 한국으로 선교사를 파송하였고, 그뿐만 아니라 한국 거주 중국인을 선교하기 위해 중국인 선교사를 창원으로 파송해 사역하고 있다. 전 세계가 협력하여 선교를 이루어 가는 일에는 전후방이 따로 없고, 1세계나 3세계 등의 구분도 없다. 이처럼 진정한 협력의 선교가 일어나야 하며, 전략을 가지고 실행하는 한국교회가 되어 지속적으로 선교를 이루어 가기를 바란다.

지금까지 한국은 빠른 변화를 거듭해 오면서 쉽게 본질을 잃어버리고 왜 변해야 하는지를 알지도 못한 채 변화를 거듭해 왔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앞으로도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을 맞닥뜨릴 것이고, 이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중 하나가 다문화사회이며, 이 상황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것이 이주민선교이다. 이주민선교는 특별한 누군가에게 주어지는 책무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 내야 하는 선교이다. 이주민은 대학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다양하게 다가올 것이다. 우리는 빛과 소금 되어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어야 한다. 그것이 이주민선교이다.

본고는 2회에 걸쳐 게재되었으며, 이전호는 한국의 이주 역사와 이주민선교 실태에 대해 다루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

전문성과 혁신으로 산업의 Frontier에서 고객을 도우며 사회변화를 위하여 Shared Value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기업과 사업 전반에 걸쳐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시장 상황 속에서 글로벌한 업무 능력과 산업에 대한 깊은 통찰력으로 고객이 새로운 성장과 혁신에 필요한 기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11 5층(서초2동, 한화생명보험빌딩)
TEL 02.2051.1870 FAX 02.2051.1877 E-MAIL info@dightlaw.com
www.dightlaw.com

산업분야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다양한 산업 분야의 소송과 자문 영역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기업들이 어디에서나 경쟁력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ICT/AI | 헬스케어 | 블록체인 | 핀테크 | 엔터테인먼트 | 모빌리티 | 이커머스 | 에너지/환경 | 농업/F&B

법률분야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기업들이 마주하는 다양한 분야의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며, 발생하는 각종 분쟁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기업법무, Technology M&A | 지적재산권 | 인사·형사·행정 등 각종소송 | 스타트업 / VC | 개인정보/빅데이터 | 부동산/건설 | 규제샌드박스 | 중국 | 사내법무지원 서비스

공익활동 공익(사회적기여)은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문화이자 목표입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모든 구성원은 공익활동을 업무의 일부로 하며, 매출의 일정 비율을 공익활동에서 사용함으로써 사회 변화를 위한 인적, 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기술 / 디자인공모전(D-Tech) | 파트너기업과 함께하는 Time Bank 프로젝트 | 공익인권단체법·제도개선 지원사업 | 1% for the Planet(환경) | 각종 공익·인권 소송

출애굽기: 성경 역사상 최초의 대규모 이주

위디국제선교회 국제이사
Gardner Webb University
선교학 교수



Dr. Tereso Casiño

글

히브리 공동체의 출애굽은 성경 역사상 최초로 일어난 대규모 이주 사건이다. 요셉 때만 해도 원래 이스라엘 공동체는 야곱의 가족 70명에 그쳤지만, 430년간 그 수는 수십만으로 늘어났다. 그만큼 애굽에서 탈출한 히브리인 인구도 많았으므로, 아마도 애굽의 노예 숫자에는 커다란 구멍이 뚫렸을 것이다. 또한 막대한 노동력이 애굽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효과는 분명했을 테니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을 수차례 거부한 것도 어찌면 당연한 일이다. 출애굽 사건은 현대 교회에 다양한 통찰을 제공하며 하나의 거대한 종교 공동체가 어떻게 오랜 기간 여정을 이어오면서도 온전한 상태를 유지하였는지를 보여준다. 또한 현대의 디아스포라 현상과도 관련이 있으며, 그 과정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내재해 있다.

하나님은 노예 신분의 사람들을 구해내고자 전체 계획을 짜시고 그 주권 아래서 완벽하게 실행하셨다. 출애굽기는 사람들이 영적 속박에서 벗어나 구원받는 것을 예표함으로써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낸다. 더 나아가 출애굽기는 인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국가의 운명을 보여주는 이야기이다. 하나님이 언제 행동하시는지(시기), 어떻게 일하시는지(방법), 왜 일하시는지(이유)를 히브리 공동체를 중심으로 기록한 것이다.

출애굽 사건은 주권자의 의지 아래 인간의 한계를 보여준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여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낸다. 출애굽기에는 하나님의 △연민(출 3:7) △인도(출 3:8) △주권(출 7~12장) △섭리(출 16~17장) △보호(출 14:21~31; 출 40:38) △방향(출 13:20~22; 출 14:19~20) △리더십(출 19~20장)이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은 언제나 백성들과 함께 '움직이는' 분이셨고, 여정 내내 그들보다 앞서가셨으며 동시에 그들과 함께 계셨다.

출애굽기는 인간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그분의 계획을 수행하는 것을 보여준다. 하나님은 계획을 실행하고자 먼저 모세를 부르셨다. 모세는 바로를 직접 대면하여 말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낙담했고, 하나님께 다른 사람을 찾아달라고 간청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가 지도자가 될 것을 강조하시고, 뒤이어 그의 형인 아론을 대변인으로 임명하셨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체험에서 하나님은 이드로를 모세에게 보내셔서 급증하는 인구를 어떻게 이끌지를 조언하게 하셨다(출 18:13~27). 모세는 장인의 조언을 따라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을 선발함으로써 백성들이 겪는 일상적인 행정 문제를 비교적 쉽게 해결했다.

영적인 측면에서는 아론 집안과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동원되었다(출 28~30장; 레위기 8~9장; 민 18장). 유다 지파 사람인 브살렐과 단 지파 사람인 오홀리압과 같은 장인들도 신성한 임무를 받았다(출 31:1~11). 이외에도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정찰 전문가들

이 임명되었고, 발람이라는 예언자는 이주민 공동체를 섬겼다(민 22~23장). 또한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자 하나님은 모세의 뒤를 이을 사람으로 여호수아를 세우셨다(수 1장).

히브리 공동체는 애굽을 떠나 광야를 40년간 떠돌며 정체성 혼란을 겪었지만, '유산'에 관해서는 분명한 인지가 있었다. 그들은 자신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히브리 민족은 오랜 시간 애굽에서 살다가 탈출해 나가면서 초국가적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었다. 그들은 자신의 조상을 기억하고, 스스로 '부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동시에 내적으로는 정체성에 관해 씨름하기 일쑤였다. 따라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낯지 아니하라"라며 고통을 안겨준 땅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것도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모습이다(민 14:3~4).

히브리 공동체는 해방 이후 40년 동안 이곳저곳을 전전했다. 계속되는 불

순종으로 그들의 여정은 위태로워졌고, 결국 목적지를 빙빙 도는 결과를 낳았다. 그들은 애굽에서 약속의 땅까지 짧은 거리를 끊임없이 우회했다. 이주는 예상보다 오래 걸렸고, 목적지에 도착하기까지 상당히 지연되고 말았다. 출애굽의 과정을 요약하고 있는 민수기 33장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떠나"는 모습이 거듭 반복되고 있다. 이처럼 영구적인 정착이 아닌 지속적인 이주는 그들의 출애굽 경험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출애굽 사건은 이주민들의 도덕적 불완전함과 실패를 드러낸다. 이주의 과정이 순탄치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으며(출 16:2),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출 17:1~7; 민 20:1~13; 신 9:8~21).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로 많은 출애굽 세대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다(출 3:8). 애굽에서 태어난 세대는 해방 이후 종종 애굽과 멀어지는 것을 경계했지만, 그들의 시선은 항상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했다.



Withee Labor Consulting

위디노무사사무소

경기도 군포시 번영로 508 신산빌딩 210호
대표노무사 : 이 재 호

Mission Statement

전도서 3:22-4:1의 말씀을 기초로

- 1) 각 사람이 자기 일을 즐거워 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을 구축한다.
- 2) 불의한 권세로부터 학대받는 자들의 위로와 힘이 되어준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 보았도다 보라 학대 받는 자들의 눈물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전3:22~4:1)

사업(BAM)영역

1. 개별 사건수행 : 임금체불, 부당해고, 직장내괴롭힘 등
2. 기업 컨설팅 및 자문 : 임금·인사노무 시스템, 급여 및 4대보험 아웃소싱 등
3. 공익사업 : 국선노무사(부당해고, 체당금), 직업계고 현장실습 지원코칭 등
4. 사회공헌활동 : 청소년근로조건 보호위원, (예비)사회적기업 멘토링 등
5. 법정 의무 교육 :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직장내괴롭힘 예방교육 등
6. 선교단체 & NGO 컨설팅



[네이버 엑스퍼트 상담] [이재호 목사(노무사) 소개영상]

다양한 국가, 다양한 종교에 대한 선교

미전도종족은 서아프리카에서 동아시아에 이르는 북위 10~40도의 직사각형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이 지역의 면적은 전 세계의 1/3에 달하며, 이곳에 거주하는 대다수가 경제적으로 빈곤에 처해 있다. 또한 종교적으로 무슬림이나 힌두교, 불교의 세력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치열한 영적 전투지이다. 2022년 12월 기준 이곳에 거주하는 무슬림은 17억 명으로 추정되며, 불교도가 6억 명, 힌두교도가 11억 6천만 명가량이다. 이 직사각형에 속한 민족들이야말로 선교사가 가장 사역하기 어려운 대상이며, 이곳에서 한국으로 오는 이주민들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명하셨던 '땅끝'이다.

이슬람권에서 온 외국인들 -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무슬림 선교 현황에 따르면 무슬림의 80% 이상이 복음을 듣지 못했지만 그들 가운데서 일하고 있는 기독교 선교사는 2천 명에 지나지 않는다. 세계 인구의 약 18%인 이슬람권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선교사가 전체 개신교 선교사의 0.2%에 불과한 것이다(kriM 편, 미완성 과업). 이슬람 종교가 세운 첫 번째 나라인 파키스탄은 어떤 종교의 선교사도 입국이 허용되지 않으며, 무슬림 대상으로 선교가 금지되어 있다. 또한 이슬람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 타종교에 대해서 철저히 배타적이다. 따라서 한국을 찾아온 이슬람권 노동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절호의 기회인 동시에 지혜롭고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국내 체류 파키스탄인의 약 97%가 무슬림이며 이들을 위한 특별한 선교 전략이 요청된다. 무슬림이 기독교로

개종할 경우 다른 무슬림들에게 심한 비난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개종한 사람은 무슬림 이름 대신 기독교식 이름을 사용하거나, 가능한 개종 전의 이야기는 회피하는 것이 좋다.

힌두권에서 온 외국인들 - 네팔, 스리랑카, 인도

힌두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선의지에 공감하면 비록 타종교인이라 할지라도 일단 고마움으로 받아들이는 편이다. 예배 또는 성경공부에 같이 참석하자고 권유해도 쉽게 거절하지 않지만, 번번이 약속을 어기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국내 체류 네팔인들은 단합이 잘되고 자국문화 보호에 적극적이며 정기적으로 소식지도 내고 있다. 또한 언어 능력이 상당히 발달하여 한국어를 잘하고, 공덕을 쌓기 위해 어려움을 당한 외국인을 돕는 일에도 적극적이다. 이들은 종교를 마치 액세서리로 여김으로써 하나님을 유일신의 개념으로 이해하지 않고 많은 신들 중 하나로 받아들인다. 따라서 이들에게 선교할 때 하나님이란 유일신의 개념을 이해시키는 것부터 시작하여 선교의 출발점을 찾아야 한다.

사회주의권에서 온 외국인들 - 중국, 미얀마, 베트남

칼 마르크스가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라고 말한 데서 알 수 있듯 이는 사회주의 국가가 종교를 보는 일반적인 시각일 것이다. 본래 이 말은 종교 무용론을 뜻하기보다 당대 교회의 신앙이 현실 문제와는 동떨어져 있거나 문제를 더욱 악화한 것에 대한 비판이었다. 이들은 종교가 가난 속에서 허덕이며 사는 민중들과 함께하기보다는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 예측과 착취를

받아들이며 안주하게 하는 데 일조한다고 생각하여 종교에 배타적이다.

특히 중국은 외국인이 타종교를 선교하지 못하도록 금지법을 만들었으며 사회정치적 목적이 아닌 순수한 예배 행위도 인정하지 않고 탄압한다. 이런 문화 속에서 거주하며 사고하던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서 쉽게 접하게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십자가이다. 이들은 직계가족이나 친척 중에 공산당원이 있는 사람들이다. 경제적인 이유로 이곳에 왔지만 선발되어 한국에 왔다는 의식 때문에 자존심도 강하다. 따라서 쉽게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변화하지 않고, 도리어 기독교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주위에 생기면 은근히 압력을 넣는다. 중국교포들은 언어는 통해도 마음문을 쉽게 열지 않고 경계하며, 외려 교회를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이용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의식구조가 한국인과 같이 관계 중심적이어서 개별적인 사귀기 선행되면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미얀마는 종교의 자유가 있고, 불교가 더 이상 국교는 아니지만 전체 인구 중 약 87%가 불교도이며 100만 개 넘는 불교 사원이 있다. 출생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미얀마인의 생각이나 행동은 불교의 영향권 아래 있으며, 승려들이 대부분의 미얀마인 생활과 양식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예컨대 어른은 아이에게 부처의 가르침과 더불어 승려를 존경하도록 가르친다. 또한 결혼을 할 경우 승려의 축복을 받아야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믿으며, 마을마다 승려와 사원이 있어서 매주 일요일 그곳에서 지낸다.

기독교로 개종한 미얀마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거처를 방문하면 대부분이 평소에 존경하던 승려의 사진을 벽에 붙여 놓았거나 염주를 벽에 걸어 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로써 복이를 거라 믿고, 자기가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미등록이라는 불안정한 신분과 환경 가운데 위로를 얻고 의지할 것이 그것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신앙 행위는 이들이 자라온 종교적 삶을 통해 형성된 것이기도 하다.

현지 선교의 원동력이 될 가능성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약 60%는 대학을 졸업한 이들이다. 동남아 국가의 극빈율은 아주 심각한데, 그곳에서 타문화인 한국으로 돈을 벌러 왔다는 것은 상당한 정보를 가진 사람이거나 실력과 재력이 있는 경우다. 한국에서는 비록 이들을 쉽게 무시하지만, 본국으로 돌아가면 이들은 사회의 주도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을 이곳 한국에서 전도하고 양육하는 일은 실로 가치 있는 일이다. 그런데 이들이 한국에서는 기독교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막상 본국으로 돌아가면 어떨까? 고국 문화로 다시 돌아간 후에도 구원의 감격을 유지할 수 있을까? 어려운 기회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사람조차도 본국으로 돌아가면 지속적인 양육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국 선교사들과 연결하는 일이 중요하며, 그로써 각국의 기존 선교사역에 활력을 가져다줄 수도 있을 것이다.

디아스포라신문은 정기적으로 한국이주민선교연합회(KIMA)의 연구보고서 <국내 이주민선교 기반 구축을 위한 대상별 선교전략 개발> 본문을 게재한다. 본고는 1장 '이주민 선교의 선교신학적 당위성과 선교전략 기반구축의 필요성'을 이전 호에 이어서 수정·요약한 글이다.



10년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

말씀대로 / 기도대로 / 사명대로 이루어지는 살롬교회!!

- 세상의 소금이 되는 쓰임받는 교회
- 거룩하신 주님을 섬기는 교회
- 주님의 이름으로 연합하는 교회
-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



Shalom
CHURCH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순복음살롬교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시냇북로2길 11 / 031-410-9420
 담임목사 이재순 / 부목사 조사무엘
 전도사 이미영, 이길순 / 캄보디아선교사 이창우, 김영정
 유관기관 : 나눔무료식당, GGVS기독교학교

주일예배 1부 8:30 / 2부 11:00 / 3부 14:00 / 수요일예배 19:30 / 목회회복성회 20:30 / 새벽기도회 월~목 05:00
 실로아예배(유년부,초등부) 주일 11:00 / 아가페학생회 토요일 12:00 / 청년부 토요일 18:00

디아스포라 선교의 전략적 방향: 난민 선교

한인디아스포라연구소 소장
유럽난민학습 공동체 대표



김성훈 선교사

디아스포라신문은 매월 김성훈 선교사의 저서 <마지막 시대의 모락: 디아스포라> 본문 일부를 발췌하여 게재한다. 이번 호는 본서 4장의 '디아스포라 선교의 전략적 방향성' 내용을 요약하였다.

2015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글로벌디아스포라포럼(Global Diaspora Forum)에서 발제된 '디아스포라 선교의 전략적 방향'의 논의 영역은 △국제학생 사역 △BAM(Business as Mission) △디아스포라 상황의 아이들 △테크놀로지와 디아스포라 △국제교회를 통한 대위임령 완수의 잠재력 △디아스포라 상황 속의 지역교회의 역할 △해양선원 선교 △난민에 대한 선교적 접근 등으로 이루어졌다. 이 중에서 난민 선교를 중심으로 요약·발췌하였으며, 나머지 영역은 이전 호에 게재되었다.

난민 선교 전략(Strategies for reaching Refugees)

난민은 금세기 우리가 맞닥뜨린 이슈 중 가장 중요한 화두이다. 본 글의 발제자인 피터 비말(Peter Vimalasekaran)은 난민에 대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인간이 생명을 위협당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자기 고향을 등지고 보호와 필요를 찾아 타국으로 이동하는 것”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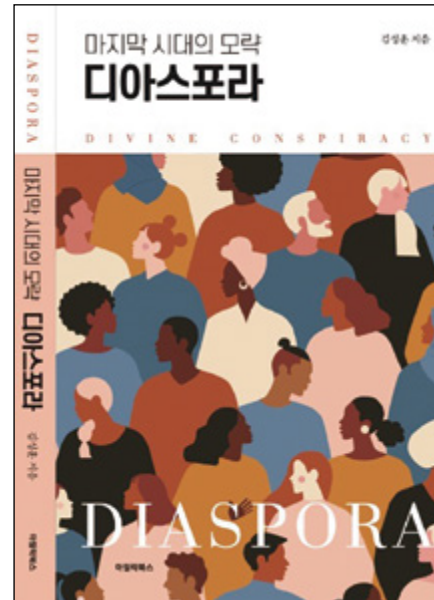
난민 사역은 총체적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 말인즉슨, 복음의 변혁의 능력으로 난민의 육체와 영혼 모두 보듬어야 한다는 것이다(McConnell, 2000). 총체적 사역의 본보기가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음의 전달과 동시에 최선을 다해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이다. 여기에는 문화적 이해가 필요하다. 그들의 삶의 정황을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곧 난민의 고향 상황, 국제분쟁의 원인, 성장 환경 등 그들에게 제대로 접근하기 위한 인류학적 자료를 섭렵하는 일이다. 문화적 이해를 잘 수행하면 차후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된다.

난민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있다. 첫째는 기도이다. 기도는 난민을 돕기 위한 첫 번째 일이자 가장 중요한 일이다. 두 번째는 친절이다. 셋째는 실제적인 지원과 도움이다. 넷째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다. 난민들은 정착을 위해 수시로 여기저기 거처를 옮겨 다닌다. 따라서 보다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다섯째는 다른 사역자들과 네트워킹하는 것이다. 만일 같은 마음으로 사역하는 사람들, 지역교회, 조직이 함께 네트워킹을 이룬다면 난민의 이동을 따라 좀 더 효과적인 사역을 전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난민 등록 사무소에 일하는 사람은 난민들이 거처를 옮기는 경우 사역 네트워킹을 통해 이동하는 지역의 그리스도인에게 이들을 연결해 줄 수 있다. 여섯째는 자료를 나누는 일이다. 난민은 공급을 요하는 사람들이다. 공급은 언제나 부족하기 마련이기에 가능한 많은 정보를 나눌 수 있도록 준

비해야 한다. 일곱째는 난민 사역자들을 동원하는 일이다. 지역교회가 난민에 대한 훈련을 받고 사역에 참여하도록 도와야 한다. 또한 선교단체도 동원하여 전략적으로 난민 선교사역을 실천해야 한다.

난민 사역을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있다. 예컨대 난민에 대한 공호와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난민은 끊임없이 이동하기 때문에 가능한 정해진 짧은 기간 내 제자양육 과정을 실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난민에게 접근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언어 훈련, 예수의 생애를 다룬 영화 상영, 법적 문제 해결 및 지원, 교통편의 제공, 특별한 이벤트 제공(크리스마스 등), 건강검진 실시, 문화 행사 조직, 방문센터 개설, 스포츠 활동 실시, 난민 주거지 방문, 실제적인 필요 제공(옷, 음식, 자전거 등)으로 난민에게 다가갈 수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접촉, 난민을 위한 예배 개설, 트라우마 치유, 통합을 위한 노력(친구 되기, 그들의 권익 대변하기 등)이 있다.

이러한 난민 사역을 실천하기 위한 대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를 제공한다. 난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로잡고 실상을 알린 후 난민의 필요 등을 교회가 제공하도록 돕는다. 둘째, 타문화와 타종교 관련 훈련이 필요하다. 타문화 대화법 및 종교적 다양성 교육, 제자 양육, 통합 과정 등이 제공되어야 한다. 셋째,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난민 가운데 있는 기독교인들이 먼저 세워지도록 돕는 일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그룹 동원이 효과적이다. 그룹 중 한 사람을 리더로 세워 목표를 정하고 협력하는 방



법이 있다. 넷째, 난민의 간증을 통해 많은 성도들에게 도전을 준다. 다섯째, 난민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도록 돕는다. 여섯째, 지역교회에 소속되도록 돕거나 또는 지역 교인과 난민들이 더불어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도록 한다. 이 경우 체류국 문화에는 동화되겠지만 자신의 정체성이나 문화적 가치 등에 많은 도전이 따를 것이다. 일곱째, 난민 개개인의 정체성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단일 문화 교회의 접근 방식을 고려하고, 궁극적으로는 다민족 교회의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다민족 교회 안에서는 다른 외국인들이 겪는 어려움에 공감하며 자신의 자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난민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접근이다. 무엇보다도 요한계시록 5장 9절의 말씀처럼 모든 열방이 주님을 찬송하는 그날이 우리들의 마지막 그림이 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다중 예배의 접근도 있다. 평소에는 종족별로 예배를 드리다가 한 번씩 같은 장소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는 방식은 최근 상당히 호응을 얻고 있다.

▶ (연재)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FEED THE CHILDREN®

Feed The Children (사)한국위원회는 국제 어린이 구호단체로서 식량 지원, 영양 관리, 재난구호, 교육프로그램, 시설 지원 등으로 복한을 포함한 국외 사업을 행하며, 국내 이주민 가정의 어린이들을 섬기며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20억의 인구가 충분한 영양을 보장 받지 못하는 가운데 Pandemic으로 1억 3천만 명이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나눔이 더욱 필요합니다

(사)피드더칠드런 한국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명학로 66-16 / 전화 031.381.1474
<http://feedthechildren.or.kr>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



열무김치 네트워크 회장
아신대학교(ACTS)
중동연구원 교수

글

김종일 목사

세계의 관심이 지금 중동에 집중되어 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이어 또 하나의 커다란 전쟁이 중동에서 발발할지에 관하여 세계인의 관심과 우려가 바로 그것이다. 이번 전쟁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라고 부르기보다 '이스라엘과 이슬람 테러 무장단체인 하마스와의 전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지금 팔레스타인에 사는 아랍계 주민 대부분은 이번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어쩌면 아랍계 주민들만 전쟁의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이고, 또 한 번의 대대적인 전쟁 가운데 팔레스타인 민간인들만 고난을 겪게 되기 때문이다.

이번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공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정치외교적 상황이 일어난 시기에 발생했다. 첫째, 팔레스타인 안에서 하마스는 약해진 입지를 만회해 보려는 강력한 의지가 있었다. 지금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로 지상군을 투입하기를 오히려 바라는 상태다. 수많은 민간인을 희생시키고 방패로 삼으면서 자기들의 존재감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 한다. 아울러 이번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지상군 투입은 '지하드'라는 이름을 내걸게 함으로써 레바논의 시아파 과격 무장단체인 '헤즈볼라'의 개입을 정당화해 줄 것이다. 이는 중동에서의 더 큰 전면전을 예고하는 것이자 결국 하마

스의 계획에 말려드는 것이 될 수 있다.

둘째, 이스라엘이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변 이슬람 국가와 협력 조짐이 보이는 시기에 침공이 일어났다는 것은 팔레스타인의 하마스나 레바논의 헤즈볼라 같은 이슬람 무장단체가 이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음을 뜻한다.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땅이 다시 자기들에게 돌아오기 전까지는 이스라엘과의 투쟁을 죽음으로 사수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기 때문이다.

셋째로,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 구도가 심각한 상황이었다. 현재 이란은 이스라엘의 지상 최대 적국으로, 중동의 진정한 평화는 오직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없애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할 정도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란의 핵 문제는 현재 이스라엘에 최대 위협이기에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선제타격설까지 나온 수준이다.

한편, 이번 하마스의 침공으로 현 이스라엘의 강경 보수 정당을 이끄는 네타냐후 총리는 대대적 응징 계획을 발표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어느 정도 희생이 따르더라도 이번 기회에 가자 지역을 완전하게 이스라엘의 땅으로 만들 수도 있다. 더 나아가, 이번 하마스의 침공을 빌미로 예루살렘 시내에 있는 '알아크사' 모스크를 없애고 그 자리에 그들의 평생 숙원인 새 유대 성전을 건립하려는 기회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팔레스타인 아랍계 주민들은 하마스의 이번 폭력적 접근을 전혀 원



▲ 황금돔으로 잘 알려진 예루살렘의 알아크사 모스크와 그 주변을 둘러싼 알사크라 모스크

하지 않는다. 이 사태로 손해를 입는 당사자는 결국 팔레스타인 주민들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또다시 살던 집과 땅을 뒤로한 채 대대적으로 가자를 떠나기 시작했으며, 그로 인해 지구촌은 또 하나의 난민 행렬을 낳게 되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번 전쟁을 바라보며 몇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다. 첫째는 저들의 아픔을 우리의 아픔으로 느끼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가졌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눅 10:25~37). 둘째는 저들을 민간 차원에서 도울 방안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 셋째는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이 안전하게 정착할 나라를 찾고 그곳에서 그들의 아픔이 위로받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신 사랑의 실천을 통해 복음을 나누는 기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

지금 중동이 다시 아파하고 있다. 서로 다른 민족이 가진 종교와 이념의 충돌로 벌써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어느 편이 이기고 지든 끔찍한 비극만 초래할 뿐이다. 이스라엘이 구약성경 안에서 선민이고, 예수님을 탄생시킨 민족으로서 그 친근함과 애정을 인정하면서도, 팔레스타인 땅에서 예수님

당시부터 살아온 수많은 아랍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이번 전쟁이 하루빨리 끝나고 그 땅에 평화가 다시 찾아오도록 기도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전쟁으로 더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스라엘 지상군의 가자 진입에 아랍계 민간인들이 안전하게 피신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 서로를 향한 악한 마음과 분노가 멈추고, 아랍인들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며(창 16:8~14), 하마스 같은 무장 테러집단을 축출하도록 기도해야 한다. 또한 이스라엘의 현 위정자들도 무자비한 보복 정신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배우길 기도해야 한다. 왜냐하면 정의의 수단으로 폭력이 어떠한 모양으로도 사용된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설 자리는 없기 때문이다.

열무김치는 '열방에서 국내로 들어 온 무슬림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코리안 처치(김치) 사역자 네트워크'의 준말로, 현재 150여 명이 모여서 한국교회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Relief

Based on the nature of Sorok's clientele the foundation provides temporary relief which varies from food, shelter and medical assistance. Sorok also launch short-term emergency relief projects under this program in times of calamity or disaster in the Philippines.

Rehabilitation

Sorok provides a community-based rehabilitation program for social integration and equalization of opportunities especially for persons affected with leprosy and homeless street people.

SUFI CORE PROGRAMS

Sorok encourages and help individuals to be empowered mentally, physically and spiritually through the following projects.

Empowerment

In line with the vision of the foundation, this program was created to ensure sustainability of the beneficiaries, the organization and even the helping mindset of the Filipinos.

Sustainability

SOROK UNI COMMUNITIES

- NATIONAL CAPITAL REGION
- SAN ANTONIO QUEZON PROVINCE
- REGION IV-B OCCIDENTAL MINDORO
- MCS PASOLOBONG, ZAMBOANGA CITY

안내 접수

문의
1215grace@naver.com

경상권역

거룩한빛광성교회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경의로 956
T 031-918-9100
H www.kwangsung.org
베트남예배 주일 오전 11:30
태국예배 주일 오후 2:30
영어예배 주일 오후 1:00

꿈의교회
경기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 131
T 031-409-9191
H www.dream10.org
영어예배 주일 오후 12:00

광탄열방교회(네팔)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혜음로 1091 2층
T 010-9002-0033
H
네팔어주일예배 주일 오전 10:30
네팔어수요예배 수요일 오후 8:00
네팔어금요예배 금요일 오후 8:00

분당매일교회 살롬하우스
경기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초부로 107번길 티엘산업
T 010-3951-8680
H
스리랑카인예배 주일 오후 3:30

순복음생명수교회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안로 64 2층
T 010-9948-8212
H
러시아어 주일예배 오전 9:00 / 11:00
러시아어 주일학교 오전 11:00
러시아어 금요기도회 오후 9:00
*(첫째 주 제외)

아시아인마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185 한양빌딩 1층
T 031-753-0688
H www.ainma.org
대예배 주일 오전 11:00
아침 특별기도회 주일 오전 10:00

이주민월드비전센터
경기 동두천시 생연로 200
T 010-3198-9329
H
네팔예배 주일 오전 10:00
다국적다문화예배 주일 오전 11:00
아프리카예배 주일 오후 3:00

할렐루야교회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368
T 031-780-9500
H www.hcc.or.kr
영어예배 주일 오후 2:00
일어예배 주일 오전 11:30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후 1:00
어린이영어예배 주일 오전 11:30

고현교회
경남 거제시 계룡로11길 17-7
T 055-635-5511
H www.gohyun.org
영어예배 주일 오후 1:10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1:00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전 11:30

대청글로벌미션센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온천천로 83 동행빌딩 5층
T 051-515-0191
H www.dgmc.co.kr
중국어학생예배 주일 오후 5:00

대영교회
울산광역시 북구 상방로 180
T 053-756-1701
H www.daeyoung.org
캄보디아예배 주일 오전 11:15
탈북민부 주일 오후 12:30
외국인한글학교 토요일 오후 8:00,
주일 오후 1:00

섬김의교회
경남 거제시 옥포대침로 106(옥포동)
T 055-688-0691
H www.sumjim.org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1:3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전 11:30
영어예배 주일 오후 1:30

시티센터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중앙길 91 서린빌딩 5층
T 070-8648-0668
H ulinch0229.wixsite.com
한국어예배 주일 오전 10:00
어린이예배 주일 오후 12:30
영어예배 주일 오후 12:30
한국어-영어연합예배 매월 첫째 주일
오전 10:00

하이웃 센터(Hi-Neighbor Center)
교회/센터: 경북 경주시 금성로 374 302호
도서관: 경북 경주시 금성로 374 301호
T 054-772-0691
H
러시아권예배 주일 오전 11:00
러시아권금요모임 금요일 오후 6:30

호산나교회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오션시티6로 2(명지동)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남로1405번길 26(하단동)
T 051-209-0191
H www.hosanna21.com
인도네시아어예배 주일 오후 12:0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후 2:00
영어예배 주일 오후 12:30
일본어예배 주일 오전 11:30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2:00

김해교회
경남 김해시 가락로 117
T 055-333-6321
H www.gloria.or.kr
필리핀예배 주일 오후 2:00

구미제일교회
경북 구미시 임수로 80
T 054-471-8650
H www.gumijeil.org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3:0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후 2:00
몽골어예배 주일 오후 3:00
영어예배 주일 오후 2:00

대구동신교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학로 4길 39(만촌동)
T 053-756-1701
H www.ds-ch.org
성인영어예배 주일 오후 12:00
중국예배 주일 오전 11:20
베트남예배 주일 오후 12:00
러시아예배 주일 오후 1:00
중국어유치부 주일 오후 12:00
영어유년부 주일 오후 2:00

울산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푸름길 10
T 052-242-1171
H www.upcweb.net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후 12:00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1:30
몽골어예배 주일 오후 1:00

울산베트남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학성로 189
T 010-7493-0080
H www.vfu.co.kr
토요예배 토요일 오후 7:00
주일예배 주일 오후 2:00

GFC국제유학생센터(부산대)
금정구 금강로 279번길 78 금양원룸 지하
T 010-7726-1310
H
영어예배 토요일 오후 7:00

전라권역

갯플리징교회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공원로 60번길 22
T 010-3633-0864
H www.godpleasing.modoo.at
러시아예배 주일 오전 11:00
다문화예배 주일 오후 1:30

월광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염화로 31번길 7
T 062-375-0400
H www.wemwem.org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30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9:30
필리핀예배 주일 오전 11:30

무지개다문화교회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중앙로 59-10 3층
T 010-3604-8139
H
다문화예배 주일 오전 10:10 / 11:30

목포주안교회
전남 목포시 청호로 159(북항동)
T 061-272-4908
H www.mokpojuan.com
외국인예배 주일 오후 1:30

목포사랑의교회
전남 목포시 옥암동 복산길 6번길 7
T 061-284-8899
H www.ds-ch.org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1:0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후 7:00
네팔어예배 주일 오후 7:00
영어예배 주일 오후 3:00
몽골어예배 주일 오후 7:00

장동교회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원장동길 87
T 063-211-1597
H www.jangdong.org
모자이크예배 주일 오전 11:00,
주일 오후 2:30,
수요일 오후 7:30

전주안디옥교회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665
T 063-274-3228
H www.antiochia.org
중국어예배주일 주일 오후 12:5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후 1:00
영어예배 주일 오후 1:00

※ 이주민예배 안내는 현재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전라권(광주), 충청권(대전/세종), 경상권(대구/울산/부산) 권역으로 나누어 소개합니다. 강원이나 제주 등 빠진 지역의 교회는 본지로 신청해 주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정규(일반)예배를 제외한 이주민 모임만 안내해 드립니다. 이주민예배 안내를 계속 업데이트 중입니다. 교회의 문의를 언제나 환영합니다.

충청권역

상당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851
T 043-288-2203
H www.sangdang.org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30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1:30
몽골어예배 주일 오후 2:00
일본예배(선교기도회) 주일 오후 1:30
러시아예배 주일 오전 9:00,
오후 12:00

신창비전외국인교회
충남 아산시 신창면 서부남로 854
T 010-2287-9643
H facebook.com
/groups/1616235851794814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전 11:00
청소년예배 주일 오후 2:00
아침기도회 월~금 오전 6:00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전 10:00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후 8:30
성경공부 토요일 오후 7:00

하늘중앙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노태산로 21(백석동)
T 041-558-9191
H www.heavencc.net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1:00
네팔어예배 주일 오전 11:00
몽골어예배 주일 오전 11:00
스리랑카어예배 주일 오전 11:00
태국어예배 주일 오전 11:00
캄보디아어예배 주일 오전 11:0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후 1:00
인도어예배 주일 오전 11:30
미얀마어예배 주일 오전 11:30
아프리카어예배 주일 오전 11:30



국내 이주민 선교를 위한 **디아스포라신문** newspaper
발행인 문창선 목사 · 편집인 문예은
안양 라00130 (정기간행물등록번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명학로 66-16
문의: 010-7418-0191
이메일: witheeman@gmail.com
홈페이지: www.diasporanews.kr
구독 및 광고문의를 환영합니다



구독 신청 QR



제2회

KIMA 포럼

한 국 이 주 민 선 교 연 합 회

주제

- 새롭게 변화하는 이주민사역이해
- 이주민선교의 전문화와 효과적 수행방법
- 다음세대를 이어갈 이주민사역자 양성

2023년 12월 04일(월) ~ 12월 06일 (수)

장소

사랑의교회 안성수양관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도라지길 29-83)

전화: 031-672-0114

회비: 30,000원 | 인원: 150명

등록: 회비입금계좌 : 신한 137-009-844855 이형노(KIMA)



문의사항 : 010-9168-3832 사무총장 이형노목사